

CONTENTS

1. 국내펀드 동향
2. 해외펀드 동향
3. 현금유출입 동향
4. 변액보험 동향

<국내펀드>

국내주식펀드 2.03% 상승 전환

<해외펀드>

선진국의 경기회복 이슈로 해외주식펀드 1.42% 상승

<현금유입>

MMF를 중심으로 한 자금 증가

<변액보험>

변액보험, 외국인 매수세에 수익률 호조

이 보고서는 펀드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운용사나 펀드를 권고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내용에 의존해 행해진 누구의 어떠한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될 수 없습니다. [저작권]

2014년 2월 국내펀드 동향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국내주식펀드 2.03% 상승

주식형 펀드 성과

국내주식펀드
2월 한달 2.03% 상승

2월 코스피지수는 전월 대비 2.0% 상승했다. 엘런 美 연준 의장의 초저금리 기조 유지발언과 유럽 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바탕으로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했고, 박근혜 정부의 경제개혁 3개년 계획발표에 따른 정책 기대감이 국내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중소형주식펀드 3.55%

펀드평가사 KG제로인(www.FundDoctor.co.kr)이 3월 3일 공시 기준가격으로 2014년 2월 펀드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국내주식형 펀드는 2.03% 상승했다. 코스피지수가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소유형 기준 모든 펀드들이 플러스 성과를 기록했다.

배당주식펀드 2.87%

중소형주식 펀드가 3.55% 수익률을 기록하며 소유형 중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다. 코스피 소형주가 4.67% 상승하며 1.85%, 1.95% 수익률을 기록한 대형주, 중형주 대비 강세를 나타냈고, 코스닥지수도 2.67% 상승하며 중소형 주식펀드의 성과 상승을 이끌었다.

코스피지수 2.00% 상승

뒤를 이어 배당주식펀드가 2.87% 상승했고, 일반주식펀드도 2.08%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동 기간 코스피지수 수익률을 상회했다. 반면 절대수익추구형펀드들은 주식시장과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며 소폭 상승, 낮은 변동성을 나타냈다.

코스닥지수 2.67% 상승

국내 유형별 평균 수익률 및 순자산액

기준일: 2014년03월03일

(단위: 개, 억원, %)

대유형	소유형	펀드수	순자산액	수익률			
				1개월	3개월	1년	연초후
주식형	일반주식	1,314	300,843	2.08	-1.36	-0.51	-0.95
	중소형주식	118	18,656	3.55	2.38	8.73	3.12
	배당주식	124	26,699	2.87	1.01	6.93	0.33
	K200인덱스	212	129,745	2.06	-3.36	-2.65	-2.41
주식혼합형	일반주식혼합	144	20,026	1.20	-0.20	0.43	-0.30
채권혼합형	일반채권혼합	399	68,295	1.01	0.70	2.64	0.28
절대수익추구형	채권알파	101	5,621	0.64	0.91	2.80	0.86
	시장중립	54	9,718	0.68	1.16	4.13	0.62
	공모주하이일드	8	415	0.37	0.53	1.01	0.19
KOSPI				2.00	-3.17	-2.29	-1.56
KOSDAQ				2.67	2.30	-1.29	5.79

주1) 펀드수, 순자산액은 해당유형 가중평균수익률을 자료: KG제로인(www.funddoctor.co.kr) 계산시 대상으로 삼은 순자산액 10억원이상, 운용기간이 2주가 넘는 펀드들의 합계

개별 주식 펀드

순자산액(클래스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1,486개 국내주식형 펀드 중 플러스 수익률을 달성한 펀드는 1,426개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코스피지수 수익률을 상회한 펀드는 84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형주식펀드가 월간성과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조선주, 삼성그룹주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월간성과 하위권에 머물렀다.

중소형주식펀드
월간성과 상위

우선주에 6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신영밸류우선주자(주식)종류A'펀드가 월간 성과 8.29%로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저가주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량주에 투자하는 '현대인베스트먼트로우프라이스자 1(주식)A1'펀드도 6.98% 수익률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KRX 조선지수를 추종하는 '삼성KODEX조선주상장지수[주식]'펀드가

4.65% 하락해 월간 성과 최하위를 차지했다. 조선 업종의 외국인 순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연초이후 마이너스 수익률이 이어지고 있다. 'KB KStar수출주상장지수[주식]'펀드와 '동양모아드림삼성그룹자 1(주식)A'펀드 또한 각각 0.77%, 0.44% 하락하며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

국내 주식형 펀드 월간 성과 상위 10

기준일: 2014년03월03일

(단위: 억원, %)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수익률		
			1개월	3개월	연초후
신영밸류우선주자(주식)종류A	67	테마주식	8.29	10.80	38.50
현대인베스트먼트로우프라이스자 1(주식)A1	14	중소형주식	6.98	5.86	17.01
트러스트밸류웨이자[주식]A클래스	65	일반주식	6.83	5.87	
삼성KODEX건설상장지수[주식]	101	기타인덱스	6.01	2.87	-20.00
하이중소형주플러스자 1[주식]C 1	2	중소형주식	5.62	3.35	10.19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자 1(주식)Class C	815	일반주식	5.59	2.99	14.60
알리안츠Best중소형자[주식](C/C 1)	41	중소형주식	5.47	5.58	13.54
미래에셋TIGER IT상장지수[주식]	825	기타인덱스	5.17	-0.24	12.43
KB배당포커스자(주식)A Class	73	배당주식	5.16	3.30	6.07
동부바이오헬스케어 1[주식]ClassA	145	테마주식	5.02	6.26	-3.56

국내 주식형 펀드 월간 성과 하위 10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수익률		
			1개월	3개월	연초후
삼성KODEX조선주상장지수[주식]	119	기타인덱스	-4.65	-13.54	-0.42
KB KStar수출주상장지수[주식]	104	기타인덱스	-0.77	-2.55	-3.15
동양모아드림삼성그룹자 1(주식)A	582	테마주식	-0.44	-7.81	-12.65
한국투자삼성그룹적립식 1(주식)(C 1)	140	테마주식	-0.34	-7.77	-12.11
한국투자골드적립식삼성그룹 1(주식)(C 1)	12	테마주식	-0.32	-7.75	-12.10
한국투자삼성그룹자 2(주식)(C 1)	5	테마주식	-0.32	-7.61	-11.94
한국투자삼성그룹 1(주식)(C 1)	9	테마주식	-0.30	-7.66	-11.75
한국투자삼성그룹적립식 2(주식)(A)	6,421	테마주식	-0.28	-7.63	-11.65
한국투자삼성그룹자 1(주식)(A)	1,291	테마주식	-0.27	-7.44	-11.37
한국투자KINDEX삼성그룹주SW 상장지수(주식)	928	기타인덱스	-0.26	-8.82	-12.39

주1) 1개월 수익률순

자료: KG제로인(www.funddoctor.co.kr)

주2) 순자산액 100억원 이상, 1개월 이상 운용 펀드 대상

주3) 클래스의 경우 대표 펀드만 표시

채권형 펀드 성과

2014년 2월 국내 채권시장은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수 영향으로 강보합을 나타냈다. 아르헨티나 금융불안 사태를 기점으로 일부 신흥국들의 자금이탈 우려가 증대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선진국 금리 움직임과 동조화되며 채권 금리가 하락(채권 가격 상승)하였다.

2월 한달 동안 국고채 금리는 전 구간에 걸쳐 하락했다. 국고채 3년물의 경우 3bp 하락한 2.85%를 기록했으며 국고채 5년, 10년물은 각각 10bp, 12bp 하락한 3.13%, 3.50%를 기록했다.

국내채권펀드

2월 한달 0.43% 상승

펀드평가사 KG제로인(www.FundDoctor.co.kr)이 3월 3일 공시 기준가격으로 2014년 2월 펀드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국내채권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0.43%로 나타났다.

중기채권펀드 0.57%

우량채권펀드 0.38%

소유형별로 살펴보면 모든 유형에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보유채권의 평균 듀레이션이 긴 중기채권펀드가 0.57% 수익률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우량채권펀드 또한 0.38% 상승했으며 뒤를 이어 일반채권펀드가 0.37% 상승했다.

국내 채권형 유형 평균 수익률 및 순자산액

기준일: 2014년03월03일

(단위: 개,억원, %)

대유형	소유형	펀드수	순자산액	수익률			
				1개월	3개월	1년	연초후
채권형	일반채권	121	16,091	0.37	1.09	2.06	0.66
	초단기채권	8	17,442	0.20	0.63	2.51	0.42
	중기채권	83	41,544	0.57	1.50	1.64	0.86
	우량채권	30	8,174	0.38	1.07	1.93	0.63
KIS채권지수(1년 종합)				0.23	0.72	2.82	0.48
MMF	MMF	172	744,140	0.19	0.61	2.48	0.40

주1) 펀드수, 순자산액은 해당유형 가중평균수익률을

계산시 대상으로 삼은 순자산액 10억원이상, 운용기간이 2주가 넘는 펀드들의 합계

개별 채권 펀드

순자산액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134개 채권형 펀드 중 134개 모든 펀드가 플러스 성과를 기록했다. 채권지수인 KIS채권지수(1년) 상승률(0.25%)을 초과한 펀드는 11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 성과 상위권에는 비교적 듀레이션이 긴 중기채권펀드가 차지한 반면, 듀레이션이 6개월 미만인 초단기채권펀드는 하위권에 머물렀다.

KIS 10년 국고채 지수 변동의 2배를 추종하는 '우리KOSEF10년국고채 레버리지상장지수 [채권-파생]'는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2.15%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월간 성과 최상위를 차지했다.

중기채권형 펀드인 '우리KOSEF10년국고채상장지수[채권]'펀드와 '삼성ABF Korea인덱스[채권](A)'펀드도 각각 1.13%, 0.79% 상승하며 뒤를 이었다.

반면, '현대트러스트 자 1[채권]종류C-s'펀드와 초단기채권에 투자하는 '한국투자KINDEX단기자금상장지수(채권)'펀드가 각각 0.16%, 0.19% 수익률을 나타내며 월간 성과 하위권을 차지했다. 이 외에도 단기채권에 투자하여 채권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을 비교적 짧게 유지하는 펀드들의 성과가 채권금리 하락에 둔감하게 반응하며 하위권에 머물렀다.

국내 채권형 펀드 월간 성과 상위 10

기준일: 2014년03월03일

(단위: 억원, %)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수익률		
			1개월	3개월	연초후
우리KOSEF10년국고채레버리지상장지수[채권-파생]	227	중기채권	2.15	3.99	2.10
우리KOSEF10년국고채상장지수[채권]	570	중기채권	1.13	2.14	1.25
삼성ABF Korea인덱스[채권](A)	3,227	중기채권	0.79	1.70	0.91
미래에셋엠브렐라 전환(채권)종류C-i	157	중기채권	0.71	1.66	0.98
미래에셋퇴직플랜자 1(채권)종류C	255	중기채권	0.71	1.70	0.97
미래에셋솔로몬장기국공채자 1(채권)종류F	20	우량채권	0.70	1.63	0.95
미래에셋개인연금 전환 1(채권)	102	중기채권	0.70	1.60	0.91
미래에셋증장기자[채권]종류C-I	609	중기채권	0.66	1.74	1.04
한국투자퇴직연금자 1(채권)(C)	224	일반채권	0.64	1.35	0.80
한국투자퇴직연금자 1(국공채)	830	우량채권	0.63	1.32	0.75

국내 채권형펀드 월간 성과 하위 10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수익률		
			1개월	3개월	연초후
현대트러스트 자 1[채권]종류C-s	130	일반채권	0.16	0.81	0.35
한국투자KINDEX 단기자금상장지수(채권)	846	초단기채권	0.19		0.40
신한BNPP BEST CHOICE단기 4[채권](종류C)	196	일반채권	0.19	0.63	0.39
미래에셋TIGER유동자금상장지수(채권)	3,704	초단기채권	0.20	0.62	0.41
삼성KODEX 단기채권상장지수[채권]	9,536	초단기채권	0.20	0.63	0.42
한화ARIRANG 단기유동성상장지수(채권)	1,719	초단기채권	0.21		0.42
우리KOSEF단기자금상장지수[채권]	1,490	초단기채권	0.21	0.64	0.43
하나UBS인Best연금 1[국공채]	238	일반채권	0.21	0.69	0.41
IBK그랑프리단기채[채권]	203	일반채권	0.22	0.66	0.46
하나UBS인Best연금 1[채권]	730	일반채권	0.22	0.71	0.43

주1) 1개월 수익률순

자료: KG제로인(www.funddoctor.co.kr)

주2) 순자산액 100억원 이상, 1개월 이상 운용 펀드 대상

주3) 클래스의 경우 대표 펀드만 표시

주식 시장

코스피지수 2.00%

코스닥지수 2.67%

대형주 1.85%

중형주 1.95%

소형주 4.67%

2월 코스피지수는 월 후반 외국인 매수세가 증가하며 지난달보다 2.0% 상승한 1,979.99pt로 마감했다.

월 초반 발표된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고 연초 이후 이어진 외국인 순매도세가 지속되며 코스피지수는 2월 첫째주 -1.0% 수익률을 나타냈다.

그러나 엘런 美 연준 의장의 초저금리 유지 발언 및 유럽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월 중반 이후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경제개혁 3개년 계획발표에 따른 정책 기대감에 코스피지수는 1,979,99pt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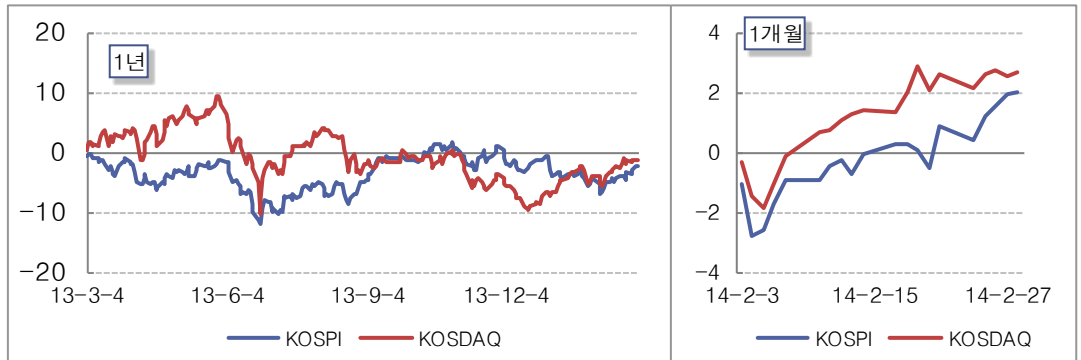
업종별 수익률은 비금속광물(+15.06%), 건설업(+9.29%), 은행(8.77%), 서비스(4.54%) 업종 순으로 강세를 보였고, 철강 금속(-3.86%), 보험(-3.83%), 통신(-1.11%) 업종 순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시가총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코스피 대형주가 1.85%, 중형주 1.95%, 소형주 4.67% 수익률을 나타내며 실적 및 경기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중소형주가 대형주를 대체할 투자처로 부각되며 강세 흐름을 보였다.

코스닥지수 또한 중소형주의 강세에 힘입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지속되며 동 기간 2.67% 상승했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이 코스닥시장에 호재로 작용하며 매수 심리를 자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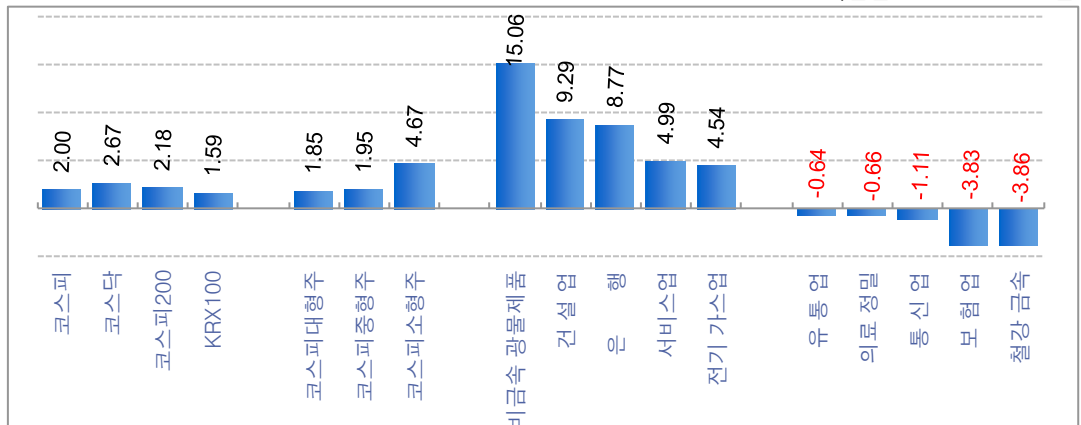
국내 주가지수 추이 (1년)

기준일 : 2014년02월28일



거래소 주요 지수 및 업종별 상하위 1개월 수익률

기준일 : 2014년02월28일



자료 : KOSCOM

채권 시장

2월 채권시장은 강보합을 나타냈다. 美 연준의 추가 양적완화 축소 우려감으로 일부 재정이 불안한 신흥국가를 중심으로 자금이탈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국내 채권 시장은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지속되며 차별화된 움직임 속에 소폭 상승했다.

- 국고채 3년물 3bp하락
- 국고채 5년물 10bp하락
- 국고채10년물 12bp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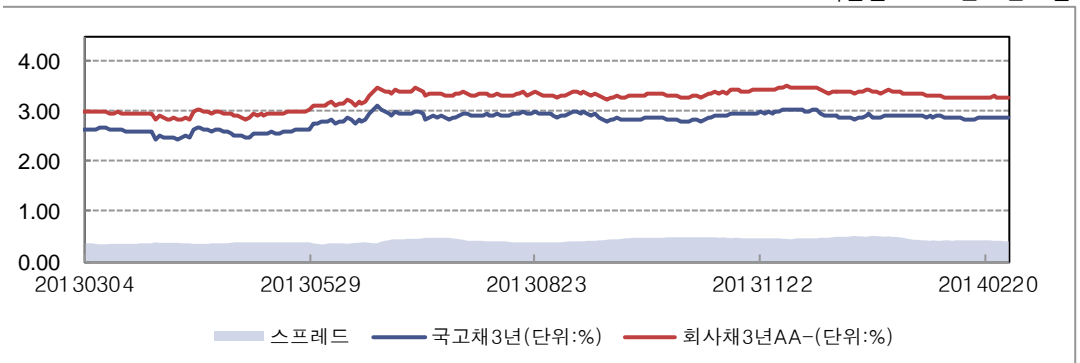
2월 금통위 의사결정이 만장일치 동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높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미약한 위험자산 선호 등이 장기물 중심의 매수를 이끌었다.

중순으로 접어들며 미국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과 외국인의 단기물 중심의 매도로 채권금리 반등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미국의 경제지표 둔화와 외국인의 지속적인 국채선물 매수, 그리고 정부의 경기 부양책 지원 기대감이 채권금리 하향세를 유지시켰다.

국고채 금리는 전 구간에 걸쳐 하락했다. 국고채 3년물의 경우 3bp 하락한 2.85%를 기록했으며 국고채 5년, 10년물은 각각 10bp, 12bp 하락한 3.13%, 3.50%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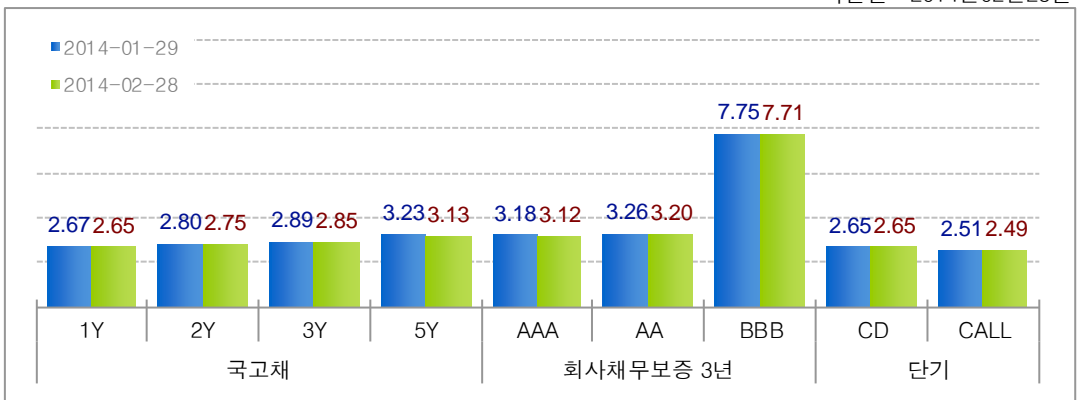
국내 주요 채권금리 추이(1년)

기준일 : 2014년02월28일



월간 채권 금리 동향

기준일 : 2014년02월28일



자료:본드웍

[황원규 KG제로인 펀드애널리스트 www.FundDoctor.co.kr]

2014년 2월 해외펀드 동향

선진국의 경기 회복 이슈로 해외주식펀드 1.42% 상승

해외주식펀드 1.42%

1월 말과 2월 초 돌발적으로 제기된 신흥국 리스크는 글로벌 펀드에 적지 않은 충격을 가했으나 이후 선진국 경제지표의 호재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시장은 온난한 2월을 보냈다. 해외 주식형 펀드 중 신흥국주식 펀드의 자금이 이탈된 반면 유럽, 미국 등 선진국주식 펀드의 자금이 큰 폭으로 유입되었다. 이는 해외 주식형 펀드의 무게 중심이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일부 이동할 가능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펀드평가사 KG제로인(www.FundDoctor.co.kr)이 3월 3일 공시된 기준가격으로 1월 한 달간 해외주식펀드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1.4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주식펀드와 일본주식펀드는 약세를 나타낸 반면 유럽, 북미주식펀드 등 선진국주식 펀드의 상승세가 뚜렷했다.

대유형 기준, 모든 유형이 플러스 성과를 나타냈다. 해외주식혼합형 펀드가 3.08%, 해외채권혼합형 펀드 1.58%, 해외채권형 펀드가 1.29%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해외부동산형과 커머더티형 또한 1.09%, 5.90%씩 상승하며 우수한 모습을 보였다.

해외펀드 유형별 수익률 및 순자산액

기준일: 2014년03월03일

(단위: 개, 억원, %)

대유형	소유형	펀드수	순자산액	수익률			
				1개월	3개월	1년	연초후
해외주식형		1,984	173,768	1.42	-3.53	-0.35	-2.66
	글로벌주식	96	13,771	3.21	2.61	24.21	0.17
	글로벌신흥국주식	239	24,428	1.93	-5.57	-6.37	-4.13
	유럽주식	93	5,711	3.61	3.95	19.01	2.81
	북미주식	103	4,333	4.88	6.33	29.12	3.94
	아시아태평양주식	26	698	0.88	-2.94	5.85	-3.45
	아시아태평양주식(ex J)	92	10,126	3.56	1.66	1.80	2.03
	동남아주식	72	2,062	4.41	1.41	-6.35	2.65
	아시아신흥국주식	84	8,210	3.06	1.56	6.06	0.41
	유럽신흥국주식	51	1,838	-2.48	-8.87	-6.92	-8.19
	남미신흥국주식	60	2,333	2.19	-7.53	-21.07	-6.09
	프론티어마켓주식	27	271	5.01	10.98	32.13	7.25
	일본주식	72	2,757	-3.64	-4.45	21.96	-7.45
	중국주식	561	83,602	0.26	-6.06	-0.99	-4.03
	인도주식	64	2,709	2.79	3.74	-5.95	0.05
	브라질주식	47	1,350	3.44	-9.19	-25.48	-5.35
	러시아주식	46	2,491	-4.55	-8.93	-8.20	-11.76
	에너지섹터	58	864	5.11	6.07	20.03	4.53
	기초소재섹터	59	3,321	6.36	6.85	-12.09	5.71
	소비재섹터	17	345	2.94	-2.43	9.78	-2.19
	헬스케어섹터	13	353	8.48	15.37	40.58	13.42
	금융섹터	28	523	1.44	0.38	19.60	-0.62
	멀티섹터	43	1,352	3.66	4.44	10.38	2.23
해외주식혼합형		156	30,649	3.08	4.18	15.49	2.62
해외채권혼합형		181	5,852	1.58	1.04	1.55	0.60
해외채권형		277	55,045	1.29	2.13	3.06	1.70
해외부동산형		50	10,779	1.09	0.60	1.70	0.90
커머더티형		100	3,515	5.90	6.14	-6.96	5.64

주1) 펀드수, 순자산액은 해당유형 가중평균수익률을

계산시 대상으로 삼은 순자산액 10억원이상, 운용기간이 2주가 넘는 펀드들의 합계

자료: KG제로인(www.funddoctor.co.kr)

헬스케어섹터펀드 8.48%	<p>해외주식펀드를 소유형 기준으로 보면 헬스케어섹터펀드가 8.48% 상승하며 가장 높은 수익률로 1월의 우수한 성과를 계속 이어나갔다. 헬스케어섹터펀드의 강세는 전 세계 고령화 추세로 관련 산업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의 제약, 의료기기, 헬스제품 등 관련산업 지원 정책방침과 미국의 건강보험개혁안의 영향도 호재로 작용했다. 이외에도 북미, 유럽 등 선진국주식펀드가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반면, 러시아, 일본, 유럽신흥국주식펀드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며 부진했다.</p>
북미주식펀드 4.88%	<p>북미주식펀드는 한 달간 4.88% 상승했다. 美 연준 신임의장의 테이퍼링 기조 유지 확인과 미국기업의 실적 개선의 영향으로 미국 증시는 상승세가 지속됐다. 북미주식펀드 역시 3주 연속 플러스 성과를 나타내며 국가별 해외주식펀드 중 가장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다.</p>
동남아주식펀드 4.41%	<p>동남아주식펀드는 4.41%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동남아 증시는 환율 안정, 금리 동결, 실적 개선 등의 호재가 겹치며 상승세가 지속됐다. 동남아국가의 경제체질 개선 노력과 신흥국 위기설이 과도했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특히 베트남이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다.</p>
유럽주식펀드 3.61%	<p>유럽주식펀드는 한 달간 3.61% 상승했다. 견고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독일과 영국 뿐아니라 주변국들의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추가 통화완화 정책 기대감 또한 호재로 작용하며 유럽 포함 선진국 경기 회복과 함께 증시 또한 상승세를 유지하는 모습이다.</p>
브라질주식펀드 3.44%	<p>브라질주식펀드는 3.44% 상승했다. 브라질증시는 국책금리가 올랐지만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었다는 소식으로 매수심리는 호전되었고 금리인상우려도 진정된 모습이다. 해외 주요기관들의 투자의견도 상향조정되면서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인상폭이 둔화되고 긴축속도도 늦췄다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면서 2월 브라질증시는 상승세를 보였다.</p>
중국주식펀드 0.26%	<p>해외주식펀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주식펀드는 한 달간 0.26%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월 초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를 앞두고 중국 정부가 금융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중국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 후 은행의 대출 축소 움직임과 1천억위안 규모의 환매조건부채권발행으로 인한 자금경색 우려가 악재로 작용하며 증시 상승의 발목을 잡았다.</p>
일본주식펀드 -3.64%	<p>일본주식펀드는 3.64% 하락했다. 미국양적완화축소와 1월 무역수지가 2조 79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이에 실적이 부진한 기업위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4분기 경제성장을 전망이 전문가 예상을 크게 밑돌면서 일본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은 호재로 작용했다.</p>
러시아주식펀드 -4.55%	<p>러시아주식펀드는 한 달간 4.55% 하락했다. 소치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소비재관련주들이 급등하였고, 유로존의 기준금리가 동결된것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루블화대 달러 환율이 최고치를 경신하며 통화가치 약세가 재부각되면서 투자심리를 위축시켰고, 우크라이나 유혈사태 또한 악재로 작용했다.</p>
	<p>섹터펀드별로 살펴보면 모든 섹터펀드가 플러스 성과를 기록했다. 이 중 헬스케어섹터 펀드가 8.48%의 수익률을 나타냈고 기초소재섹터와 에너지섹터펀드가 각각 6.36%, 5.11% 상승했다. 멀티섹터펀드와 소비재섹터펀드 또한 각각 3.66%, 2.94%씩 상승하는 수익률을 기록하며 섹터펀드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p>

개별 해외 펀드 성과

1,069개 해외펀드 중
773개 펀드 플러스
성과

순자산액(클래스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1,076개 해외주
식펀드 중 773개 펀드가 플러스 성과를 보였다.

‘블랙록월드골드자(주식-
재간접)(H)(A)’ 펀드
12.16% 성과 상위

미국 양적완화 축소와 신흥국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금 및 자원주를 포함하는
기초소재섹터 펀드가 강세를 나타냈다. 안전자산이 상대적인 투자처로 떠올
랐다. 헬스케어섹터 펀드 또한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성과 상위 펀드에 자리
했다.

‘미래에셋TIGER차이나
A300상장지수자(주식-
파생)’ 펀드
-6.63% 성과 하위

성과상위 펀드 중 ‘블랙록월드골드자(주식-재간접)(H)(A)’ 펀드가 12.16%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해외주식펀드 중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뒤를 이어
‘삼성KODEX합성-미국 바이오테크상장지수[주식-파생]’ 펀드가 11.44% 상
승했다.

반면 성과 하위 펀드에는 중국주식펀드가 주로 자리했다. ‘미래에셋TIGER차
이나A300상장지수자(주식-파생)’ 펀드가 6.63% 하락했고 ‘이스트스프링차이
나드래곤AShare자(UH)[주식]클래스A’ 펀드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해외 주식형 펀드 월간 성과 상위 10

기준일: 2014년03월03일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수익률 (단위: 억원, %)		
			1개월	3개월	연초후
블랙록월드골드자(주식-재간접)(H)(A)	84	기초소재섹터	12.16	16.16	18.51
삼성KODEX 합성-미국 바이오테크상장지수[주식-파생]	271	북미주식	11.44	31.89	31.77
프랭클린미국바이오헬스케어자(주식-재간접) Class A	37	헬스케어섹터	9.87	25.46	21.18
신한BNPP골드 1[주식](종류A)	161	기초소재섹터	8.37	14.13	18.67
KB MENA자(주식)A	50	프론티어마켓주식	8.21	17.94	12.46
한화글로벌헬스케어자(주식)종류A	116	헬스케어섹터	7.90	13.01	11.47
JP모간천연자원자(주식)A	715	기초소재섹터	7.00	7.29	6.70
KTB중국1등주[주식]종류A	43	중국주식	6.02		3.59
피델리티미국자(주식-재간접)A	557	북미주식	5.95	9.33	5.40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업종대표 1(주식)종류A	189	시아태평양주식(ex	5.88	5.49	5.50

해외 주식형 펀드 월간 성과 하위 10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수익률		
			1개월	3개월	연초후
미래에셋TIGER차이나A300상장지수자(주식-파생)	857	중국주식	-6.63		
이스트스프링차이나드래곤AShare자(UH)[주식]클래스A	971	중국주식	-6.10	-10.01	-7.30
KB중국본토A주레버리지자(주식-파생재간접)A CLASS	60	중국주식	-5.82	-20.24	-11.99
이스트스프링차이나드래곤AShare자(H)[주식]클래스A	808	중국주식	-5.75	-10.35	-7.82
한화재팬코아 1[주식]종류A	57	일본주식	-5.56	-6.58	-8.46
미래에셋China A Share 자 1(H)(주식)종류A	550	중국주식	-5.40	-12.01	-9.52
KB러시아대표성장주자(주식)A	92	러시아주식	-5.33	-8.44	-11.25
미래에셋ChinaAShare자 2(H)(주식)종류A	326	중국주식	-5.31	-11.32	-9.22
삼성CHINA2.0본토자 2[주식](A)	124	중국주식	-5.21	-11.54	-8.60
JP모간러시아자(주식)A	885	러시아주식	-5.19	-10.46	-13.49

주1) 1개월 수익률순

주2) 순자산액 100억원 이상, 1개월 이상 운용 펀드 대상

주3) 클래스의 경우 대표 펀드만 표시

자료: KG제로인(www.funddoctor.co.kr)

[강주현 KG제로인 펀드애널리스트 www.FundDoctor.co.kr]

2014년 2월 현금입출입 동향

MMF를 중심으로 한 자금 증가

공모펀드 자금동향

2월 공모펀드 설정액
(ETF, 재투자 제외)
5조 2,206억원 증가

MMF, 5조 2,953억원
혼합형, 1,927억원
설정액 증가
주식형, 2,306억원
채권형, 908억원
설정액 감소

2014년 2월 설정액 기준으로 공모펀드는 주식형, 채권형은 자금이 감소, 혼합형, MMF형은 자금이 증가했다. 특히 MMF형은 5조원이 넘는 상승폭을 다시 나타냈다. 반면, 주식형펀드가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며 2,306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펀드평가사 KG제로인의 유형분류기준에 따라 펀드자금동향을 조사한 결과, 공모펀드 설정액은 2014년 3월 3일 현재 182조 6,750억원으로 집계됐다. 2월 한 달 동안 5조 2,206억원의 설정액(ETF, 재투자 제외)이 증가했고, 순현금흐름으로는 5조 3,732억원이 유입됐다.

유형별로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지난 달에 이어 MMF에서 5조 2,953억원의 자금이 순유입됐으며 국내혼합형 펀드 또한 2천억원의 설정액 증가를 나타냈다. 반면 국내주식형 펀드는 938억원 가까이 자금 감소세로 전환, 국내채권형 펀드는 자금 유입세로 전환됐다.

해외펀드에서는 2,423억원의 설정액이 감소했다. 중국주식펀드의 자금 유출이 해외주식형 펀드의 자금유출을 이끌었다. 해외혼합형 및 해외채권형, 기타 유형에서도 자금의 유출이 생기며 해외펀드 대유형 기준 모든 유형에서 자금이 감소했다.

공모펀드 유형별 1개월간 자금 추이

기준일: 2014년03월03일

(단위:개, 억원)

	펀드수	설정액	설정액 순증감	순자산액	비중	현금흐름
주식형	4,637	726,627	-2,306	660,609	37.46	-945
혼합형	1,506	160,167	1,927	160,862	9.12	2,057
채권형	580	118,125	-908	119,264	6.76	-858
MMF	191	754,074	52,953	762,768	43.25	53,203
기타	689	67,757	541	60,122	3.41	273
총계	7,603	1,826,750	52,206	1,763,625	100.00	53,732
국내주식형	2,470	519,606	-938	490,471	27.81	-500
국내혼합형	1,123	121,374	2,020	123,020	6.98	2,076
국내채권형	264	61,997	39	62,799	3.56	-10
국내MMF	191	754,074	52,953	762,768	43.25	53,203
국내기타	446	39,972	556	35,652	2.02	226
국내소계	4,494	1,497,023	54,629	1,474,710	83.62	54,996
해외주식형	2,167	207,021	-1,369	170,138	9.65	-445
해외혼합형	383	38,793	-93	37,842	2.15	-19
해외채권형	316	56,128	-946	56,465	3.20	-847
해외기타	243	27,784	-15	24,470	1.39	47
해외소계	3,109	329,727	-2,423	288,915	16.38	-1,264

주1) 제로인 유형분류기준, ETF제외

자료: KG제로인(www.funddoctor.co.kr)

주2) 설정액 순증감은 재투자분 제외, 현금흐름은 실제 자금유출입액

주3) 혼합형은 국내외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절대수익추구형을 포함

주4) 기타는 국내외 기타, 부동산형, 커머더티형을 포함

국내 주식펀드 자금동향

국내주식형펀드 설정액
938억원 감소

국내주식형 펀드 설정액(ETF, 재투자 제외)은 938억원 감소한 51조 9,606억 원으로 집계됐다. 현금흐름으로도 500억원이 순유출됐다. 소유형 기준으로 인덱스 펀드를 제외한 대부분 유형에서 자금의 유출이 있었고 일반주식펀드가 가장 높은 자금감소액을 나타냈다.

일반주식펀드
1,103억원 유출

세부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주식펀드의 자금유출이 눈에 띄었다. 일반주식펀드가 1,103억원의 자금 유출을 보였고 중소형주식 펀드 또한 365억원 감소했다. 테마주식 펀드도 314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가며 자금 추이가 유출로 전환했다. K200인덱스펀드와 기타인덱스펀드는 각각 480억원, 351억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지난달에 이어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다.

국내주식펀드의 순자산액은 전월 보다 500억원 감소한 49조 471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주식 순자산액이 전월 대비 586억원 이상 줄었고 중소형주식펀드와 테마주식펀드도 소폭 하락했다.

개별 펀드별로 살펴보면, 대표펀드기준(클래스펀드 합산)으로 ‘삼성KODEX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펀드가 3,707억원의 자금유입을 나타내며 국내주식펀드 중 월간 자금유입 규모 최상위에 자리했다. 뒤를 이어 ‘한국투자KINDEX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펀드가 1,321억원 증가했다. 두 펀드 모두 KOSPI200의 수익률 추종을 목표로 운용되는 ETF 펀드로 국내증시의 상승이 기대됨에 따라 자금유입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삼성KODEX인버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펀드는 1,560억원의 자금이 순유출되며 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국내주식펀드 소유형별 1개월간 자금 추이

기준일: 2014년03월03일

(단위:개, 억원)

	펀드수	설정액	설정액 순증감	순자산액	비중	현금흐름
일반주식	1,457	325,434	-1,103	305,478	62.28	-586
중소형주식	130	17,849	-365	18,669	3.81	-375
배당주식	133	26,651	13	26,767	5.46	20
테마주식	371	61,546	-314	55,402	11.30	-265
K200인덱스	215	60,447	480	59,205	12.07	439
기타인덱스	164	27,679	351	24,950	5.09	268
총 계	2,470	519,606	-938	490,471	100.00	-500

주1) 제로인 유형분류기준, ETF제외

자료: KG제로인(www.funddoctor.co.kr)

주2) 설정액 순증감은 재투자분 제외, 현금흐름은 실제 자금유출입액

해외 주식펀드 자금동향

해외주식형 설정액
(ETF, 재투자 제외)
1,369억원 감소

중국주식펀드를 중심으로
자금이탈 지속

해외주식펀드 설정액(ETF, 재투자 제외)은 2월 한 달 동안 1,369억원 감소한 20조 7,021억원으로 집계됐다. 순현금유출은 445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 이어 중국주식펀드와 글로벌신흥국주식펀드의 설정액이 감소했고 두 유형의 펀드가 해외주식형 펀드의 자금유출폭을 키웠다. 반면 글로벌주식펀드, 유럽주식펀드를 비롯한 선진국주식펀드의 자금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해외주식형 펀드 투자지역별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글로벌주식, 유럽, 북미 등의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자금이 순유출됐다. 중국주식펀드는 1,349억원으로 자금 유출 규모가 가장 컸고, 글로벌신흥국주식펀드가 711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유럽주식펀드는 736억원으로 가장 많은 자금 유입을 보였고, 글로벌주식펀드와 북미주식펀드 또한 각각 599억원, 279억원의 순유입이 있었다.

해외주식펀드 소유형별 1개월간 자금 추이

기준일: 2014년03월03일

(단위:개, 억원)

	펀드수	설정액	설정액 순증감	순자산액	비중	현금흐름
권역별						
글로벌주식	124	12,963	599	14,146	8.31	674
유럽주식	101	5,626	736	5,724	3.36	753
북미주식	107	3,623	279	3,819	2.24	286
아시아태평양주식	28	768	-8	708	0.42	-7
아-태주식(ex J)	102	11,147	-193	10,139	5.96	-168
동남아주식	84	2,199	-35	2,076	1.22	-32
글로벌신흥국주식	258	32,305	-711	24,377	14.33	-527
아시아신흥국주식	85	10,045	-214	8,210	4.83	-170
유럽신흥국주식	58	3,255	-66	1,845	1.08	-38
남미신흥국주식	63	3,374	-80	2,292	1.35	-51
프론티어마켓주식	30	323	54	273	0.16	43
기타신흥국주식	3	11	-1	6	0.00	-0
섹터별						
에너지섹터	60	1,271	-11	864	0.51	-9
기초소재섹터	60	6,023	-129	3,321	1.95	-70
소비재섹터	17	341	2	345	0.20	2
헬스케어섹터	14	278	96	355	0.21	121
금융섹터	28	640	-15	523	0.31	-11
공공서비스섹터	1	24	-1	23	0.01	-1
멀티섹터	55	1,351	-61	1,370	0.81	-64
국가별						
일본주식	79	3,852	35	2,722	1.60	59
호주주식	4	4	-0	4	0.00	-0
중국주식	586	95,867	-1,349	80,136	47.10	-1,092
인도주식	72	3,903	-111	2,724	1.60	-76
브라질주식	56	2,224	-26	1,337	0.79	-15
러시아주식	50	5,273	-182	2,491	1.46	-77
타이완주식	12	14	-0	14	0.01	-0
말레이시아주식	3	6	-0	7	0.00	-0
독일주식	3	136	22	156	0.09	25
기타국가주식	24	174	-1	132	0.08	-0
총 계	2,167	207,021	-1,369	170,138	100.00	-445

주1) 제로인 유형분류기준, ETF제외

자료: KG제로인(www.funddoctor.co.kr)

주2) 설정액 순증감은 재투자분 제외, 현금흐름은 실제 자금유출입액

2014년 2월 신규 설정 펀드

88개 펀드 신규설정

2월 한 달 동안 88개 펀드가 신규설정되었으며, 이들 펀드의 설정액은 2014년 3월 3일 현재 1조 2,061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국내펀드 설정액은 1조 1,674억원, 해외펀드 설정액은 38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설정액 1조 2,061억원

신규설정된 공모펀드의 총 설정액 중 MMF펀드가 6,399억원으로 전체 설정 규모 중 53%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채권형펀드 설정액은 3,610억원으로 지난달에 비해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다.

신규설정펀드 중 2월 11일에 설정된 MMF 펀드인 ‘하나UBS클래스원신종 MMF K- 5 Class C-F’ 펀드가 6,397억원의 설정액으로 2월 한 달간 신규펀드 중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이스트스프링중장기[채권]클래스 C-F’ 펀드를 포함한 채권형펀드가 설정액 상위 펀드에 다수 자리했다.

[강주현 KG제로인 펀드애널리스트 www.FundDoctor.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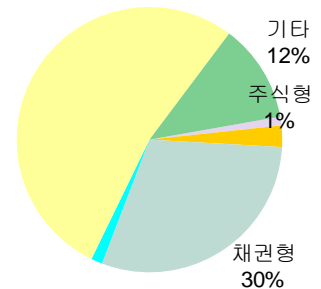
02월 신규펀드 설정현황 (공모)

기준일: 2014년03월03일

(단위: 억원, 개, %)

펀드 유형	국내투자		해외투자		전체	
	설정액	펀드수	설정액	펀드수	설정액	펀드수
주식형	127	5	0	11	128	16
주식혼합형	1	5	0	3	1	8
채권혼합형	69	10	245	15	314	25
채권형	3,500	4	110	3	3,610	7
절대수익추구형	165	10			165	10
부동산형						
MMF	6,399	3			6,399	3
기타	1,413	17	32	2	1,445	19
커머더티형						
운용사 전체	11,674	54	388	34	12,061	88

신규 펀드 시장 비중 현황



주1) 제로인 유형 분류 체계에 의함

자료: KG제로인(www.funddoctor.co.kr)

주2) 유형내 ETF는 제외, 클래스 펀드 기준 산출

주3) 2013년 5월 동안 설정된 펀드로 설정액은 6월 3일 기준임

주4) CDSC관련 과거성과연결 클래스펀드는 제외.

02월 신규설정 공모펀드 설정액 상위 펀드

기준일: 2014년03월03일

(단위: 억원)

펀드명	운용사	설정일	설정액	펀드유형
하나UBS클래스원신종MMF K- 5 Class C-F	하나UBS	20140211	6,397	MMF
이스트스프링중장기[채권]클래스C-F	이스트스프링자산	20140228	1,000	채권형
NH-CA법인용우량채권형[채권]Class Cf	NH-CA운용	20140227	1,000	채권형
트러스톤중장기자[채권]클래스	트러스톤운용	20140212	1,000	채권형
하이굿초이스중장기[채권]Class C-F	하이운용	20140224	500	채권형
신한BNPPHK- 76[ELS-파생]	신한BNPP	20140210	314	기타
미래에셋프리미어KH- 4(ELS-파생)	미래에셋자산	20140217	271	기타
신한BNPPHK- 77[ELS-파생]	신한BNPP	20140224	223	기타
하이2IndexHK- 11[ELS-파생]	하이운용	20140203	130	기타
트러스톤밸류웨이자[주식]클래스	트러스톤운용	20140211	127	주식형

주1) 유형체계 :제로인 유형에 의한 분류

자료: KG제로인(www.funddoctor.co.kr)

주2) 설정액 상위 펀드

변액보험 국내주식펀드 코스피수익률 하회

변액보험 국내펀드 성과

변액보험 국내주식펀드
1.96%

2월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초저금리 유지 발언과 박근혜 정부의 경제개혁 3개년 계획발표에 따른 정책 기대감에 외국인들이 순매수세로 전환했다. 이에 국내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는 한달 간 각각 2.00%, 2.67% 상승하며 변액보험 국내펀드도 모든 유형에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변액보험 가치주식펀드
2.54%

3월 3일 생명보험협회에서 공시한 기준가격을 기초로 펀드평가사 KG제로인(www.FundDoctor.co.kr)이 2014년 2월 변액보험 펀드의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변액보험 주식형 펀드수익률은 1.96%를 기록했다. 동기간 국내주식형 펀드(변액보험 아닌 일반공모펀드)성과와 코스피지수 수익률을 각각 0.07%p, 0.03%p 하회했다.

변액보험 국내채권펀드
0.47%

가치주식펀드가 2.54%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변액일반주식펀드가 2.07% 상승하여 그 뒤를 이었다. 일반주식펀드에 비해 주식편입비가 낮은 일반주식(6080)펀드는 1.51% 상승했다. 섹터, 테마 등에 투자하는 기타주식펀드가 0.70%의 수익률을 기록해 주식형 내에선 가장 저조했다.

2월 한달간 전 구간에 걸쳐 국고채 금리가 소폭 하락하며 국내 채권시장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 변액보험 국내채권펀드는 0.47%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변액일반채권이 0.48% 수익률로 가장 우수했으며, 중장기채권펀드도 0.47% 상승하며 뒤를 이었다.

변액보험 국내 유형별 평균 수익률 및 순자산액

기준일: 2014년03월03일

(단위: 개,억원, %)

대유형	소유형	펀드수	순자산액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주식형	일반주식	51	78,665	2.07	-2.26	4.08	-0.66
	가치주식	20	23,017	2.54	0.09	6.82	6.81
	한국인덱스	34	39,334	1.86	-3.33	3.09	-3.38
	기타주식	10	8,113	0.70	-5.44	-1.84	-7.78
	일반주식(6080)	24	19,343	1.51	-1.37	3.12	-0.27
주식혼합형	일반주식혼합	101	197,673	1.35	-0.61	2.83	0.19
채권혼합형	일반채권혼합	90	158,691	0.97	0.25	2.42	0.87
	채권알파	16	24,106	0.70	-0.65	0.86	-2.27
KOSPI				2.00	-3.17	2.78	-2.29
KOSDAQ				2.67	2.30	2.36	-1.29
채권형	변액일반채권	83	113,977	0.48	1.31	1.62	1.79
	초단기채권	20	4,978	0.20	0.58	1.09	2.13
	중장기채권	5	5,100	0.47	1.27	1.48	1.42
	우량채권	1	205	0.44	1.19	1.42	1.69
KIS채권지수(1년 종합)				0.23	0.72	1.42	2.82

주1) 펀드수, 순자산액은 기준일 현재 평균수익률 계산시 대상으로 삼은 펀드들의 합계

주2) 유형별 수익률은 순자산액 10억원이상, 운용기간이 2주가 넘는 펀드들의 순자산액가중평균 수익률을 일별로 계산한 후 기간누적해 산출함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변액보험 해외주식펀드, 선진국과 신흥국 차별화

변액보험 해외펀드 성과

해외주식형 1.54%

미국주식펀드 3.66%

러시아주식펀드 -5.03%

2월 한달간 변액보험 해외주식펀드는 1.54% 상승하며 일반 해외주식형(대유형 기준) 펀드 수익률 1.89%를 0.35%p 소폭 하회했다. 투자지역별로 살펴보면 선진국과 신흥국주식펀드들의 성과가 차별화되는 모습이었다.

선진시장의 증시 강세가 눈에 띄는 가운데 미국주식펀드가 3.66% 수익률로 해외주식펀드 소유형 가운데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유럽주식펀드와 글로벌주식펀드가 각각 3.24%, 2.81%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주식펀드는 5.03% 급락했으며 엔저 영향으로 1979년 이후 사상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한 일본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증대하며 일본주식펀드가 3.21% 하락했다.

모든 섹터펀드들이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가운데, 美 북동부 한파의 영향으로 원유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며 글로벌에너지섹터펀드는 2월 한달 간 4.96% 상승했다. 글로벌산업섹터펀드와 글로벌소비재섹터펀드 또한 각각 4.63%, 4.07%의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변액보험 해외펀드 유형별 수익률 및 순자산액

기준일: 2014년03월03일

(단위: 개,억원, %)

대유형	소유형	펀드수	순자산액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해외주식형		83	16,880	1.54	-2.91	3.13	-2.18
	글로벌주식	17	3,360	2.81	1.99	6.99	12.07
	신흥국주식	17	2,887	1.33	-5.18	3.50	-7.18
	유럽주식	5	241	3.24	3.72	11.61	21.08
	아시아주식	1	239	1.29	-2.87	5.44	4.60
	아시아신흥국주식	11	4,547	1.99	-2.51	2.97	-6.61
	유럽신흥국주식	3	124	-1.92	-9.14	-1.86	-8.73
	EMEA	1	122	-0.58	-3.40	4.79	7.86
	프론티어마켓주식	1	24	-0.32	1.49	6.41	9.38
	남미신흥국주식	3	172	0.37	-7.43	-2.95	-18.71
	일본주식	1	45	-3.21	-4.53	10.21	24.02
	미국주식	4	544	3.66	4.28	10.58	23.09
	중국주식	9	3,344	-0.89	-7.81	-3.55	-5.36
	러시아주식	1	14	-5.03	-10.42	-4.03	-12.54
	글로벌에너지섹터	2	120	4.96	3.73	4.83	6.02
	글로벌산업섹터	1	44	4.63	4.69	13.29	13.23
	글로벌소비재섹터	1	703	4.07	2.97	16.04	28.79
	글로벌멀티섹터	5	350	2.66	1.61	5.95	0.45
커머더티형		10	494	3.02	3.28	0.16	-1.88
해외주식혼합형		80	30,452	2.21	1.15	7.02	5.62
해외채권혼합형		23	9,009	1.54	1.40	4.84	3.83
해외채권형		39	7,614	1.41	2.28	5.84	4.55
해외부동산형		2	221	1.94	2.58	3.62	1.60

주1) 펀드수, 순자산액은 기준일 현재 평균수익률 계산시 대상으로 삼은 펀드들의 합계

주2) 유형별 수익률은 순자산액 10억원이상, 운용기간이 2주가 넘는 펀드들의 순자산액가중평균 수익률을 일별로 계산한 후 기간누적해 산출함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2월 변액보험 순자산액 1조 7천억원 이상 증가

변액보험 펀드 동향

**2월 변액보험 순자산액
1조 7,430억원 증가한
81조 3,183억원**

펀드평가사 KG제로인(www.FundDoctor.co.kr)의 유형분류 기준에 따라, 3월 3일 기준으로 변액보험 순자산액을 조사한 결과 81조 3,183억원으로 집계돼 1월말보다 1조 7,43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펀드는 모든 유형에서 순자산액이 증가했으며 해외펀드의 경우도 해외부동산형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형에서 순자산액의 증가가 집계됐다.

국내증시 상승의 영향으로 한달 간 국내펀드 순자산액은 1조 5,444억원 증가한 72조 5,176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식형이 6,035억으로 가장 큰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뒤를 이어 주식혼합형과 채권혼합형이 각각 3,897억원, 2,988억원 증가했다.

해외펀드 순자산액은 1,986억원 증가한 8조 8,008억원으로 집계됐다. 해외주식혼합형의 순자산액은 928억원 증가한 4조 4,404억으로 해외펀드 유형 중 가장 큰 증가세를 나타냈다. 또한 해외주식형과 해외채권형도 각각 443억원, 327억원 증가했다. 2억원 순자산액이 감소한 해외부동산형을 제외하고 해외펀드형 역시 국내펀드와 마찬가지로 모든 유형에서 순자산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순자산액 기준으로 주식혼합펀드가 전체 변액보험의 32%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채권혼합형 27%, 주식형 25%, 채권 16%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원규 KG제로인 펀드애널리스트 www.FundDoctor.co.kr]

변액보험 유형별 자금 추이

기준일: 2014년03월03일

(단위: 억원, 개, %)

펀드 유형	펀드수	순자산액			변액보험 시장현황(순자산액 기준)
		1월말	2월말	증감	
주식형	159	176,842	182,877	6,035	
주식혼합형	125	215,554	219,451	3,897	
채권혼합형	134	192,718	195,706	2,988	
채권형	140	123,775	126,230	2,454	
기타	29	843	912	69	
국내소계	587	709,732	725,176	15,444	
해외주식형	100	16,488	16,931	443	
해외주식혼합형	94	43,476	44,404	928	
해외채권혼합형	31	14,060	14,271	211	
해외채권형	48	7,319	7,646	327	
해외부동산형	2	223	221	-2	
커머더티형	12	470	502	32	
해외기타	14	3,985	4,033	48	
해외소계	301	86,021	88,008	1,986	
전체	888	795,753	813,183	17,430	

주1) 제로인 유형분류 기준, 퇴직연금제외.

자료: KG제로인(www.funddoctor.co.kr)

변액보험 국내 주식형 1년 성과 상위 Top 10

기준일: 2014년03월03일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메트라이프 VA 배당주식형	207	가치주식	4.21	5.09	13.62	19.77
메트라이프 VUL종신 배당주식형	88	가치주식	4.20	5.12	13.77	19.37
메트라이프 VA 배당주식형	628	가치주식	4.15	4.94	13.24	18.24
PCA VUL 배당주	1,860	가치주식	3.61	1.06	3.91	13.86
메트라이프 VUL 가치주식형	14,551	가치주식	2.53	0.50	7.67	8.87
ACE VUL 장기자산배분형 펀드	301	일반주식(6080)	1.72	0.95	6.06	8.68
푸르덴셜 VUL 롱텀밸류주식형	730	가치주식	1.88	-0.01	6.83	7.70
삼성 VUL종신 배당주식형	138	가치주식	2.10	3.04	12.98	7.57
삼성 VUL&VA 배당주식형	190	가치주식	2.05	2.99	12.90	7.21
PCA VUL 가치주	571	가치주식	3.33	-0.11	7.72	7.15

변액보험 국내 주식혼합형 1년 성과 상위 Top 10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메트라이프 변액종신 배당주식혼합형	298	일반주식혼합	2.26	3.14	7.34	9.99
교보 VA 배당주식혼합형	509	일반주식혼합	1.84	1.09	2.51	5.76
알리안츠 VUL 주식혼합형	186	일반주식혼합	1.49	-0.13	6.01	3.95
동부 변액종신&변액CI종신 혼합형	224	일반주식혼합	1.33	0.53	4.30	2.55
한화 VA 5대그룹주혼합형 III	155	일반주식혼합	0.71	-0.69	3.22	2.53
삼성 VUL 그로스50혼합형	318	일반주식혼합	1.73	-0.00	3.72	2.50
한화 VUL종신 가치주혼합형	1,364	일반주식혼합	1.11	-0.42	3.46	2.30
삼성 VUL 그로스혼합형	445	일반주식혼합	1.52	0.03	4.01	2.22
동양 VUL종신 혼합안정형	177	일반주식혼합	1.01	-0.36	2.27	2.16
삼성 VUL종신 주식혼합형	1,016	일반주식혼합	1.70	-0.10	3.55	2.11

변액보험 국내 채권혼합형 1년 성과 상위 Top 10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푸르덴셜 VUL종신 롱텀밸류혼합형	227	일반채권혼합	1.80	1.93	2.84	6.50
KB VUL&VA 배당주혼합형	655	일반채권혼합	1.63	1.86	4.96	5.52
푸르덴셜 VUL종신 배당혼합형	346	일반채권혼합	1.28	1.42	1.92	3.86
푸르덴셜 VA 혼합형II	174	일반채권혼합	1.28	1.41	1.82	3.75
푸르덴셜 VA 배당혼합형	553	일반채권혼합	1.26	1.29	1.90	3.65
삼성 변액종신 혼합형	5,574	일반채권혼합	1.12	0.75	3.30	2.60
삼성 VA 그로스혼합형	2,774	일반채권혼합	1.12	0.52	2.97	2.28
알리안츠 VA 혼합2형	624	일반채권혼합	0.90	0.30	3.32	2.24
동부 VA 안정형	50	일반채권혼합	1.13	0.55	3.55	2.08
알리안츠 VUL(2형) 혼합형	52	일반채권혼합	0.59	0.11	3.24	1.81

변액보험 국내 채권형 1년 성과 상위 Top 10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IBK연금 VA 채권형	158	변액일반채권	0.30	1.05	1.54	2.45
미래에셋 VUL MMF형	52	초단기채권	0.18	0.57	1.13	2.37
AIA VUL MMF1형	329	초단기채권	0.19	0.58	1.15	2.36
알리안츠 VUL종신 채권형	67	변액일반채권	0.21	0.86	1.22	2.33
알리안츠 VUL 안정형	131	단기채권	0.19	0.60	1.19	2.32
교보 VUL 채권형	1,182	변액일반채권	0.55	1.64	1.89	2.32
미래에셋 변액종신 채권형	59	변액일반채권	0.48	1.34	1.95	2.30
미래에셋 VUL 채권형	114	변액일반채권	0.36	1.09	1.69	2.29
삼성 VUL&VA 단기채권형	68	초단기채권	0.18	0.56	1.16	2.28
ACE VUL&VA 단기채권형 펀드	292	초단기채권	0.20	0.58	1.13	2.26

주1) 순자산액 50억원 이상, 1개월 수익률순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주2) 펀드명은 제로인이 변액상품을 구분해 부여한 것으로 변액연금은 VA(Variable Annuity),

변액유니버설은 VUL(Variable Universal Life)로 표시함

변액보험 해외 주식형 1년 성과 상위 Top 10

기준일: 2014년03월03일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1년	연초후
미래에셋 VA 글로벌컨슈머주식형	703	글로벌소비재섹터	4.07	2.97	16.04	28.79
ING VUL 글로벌기후변화주식재간접형	54	글로벌멀티섹터	4.26	5.34	16.25	26.91
메트라이프 VUL 미국주식형	461	미국	3.73	4.56	10.17	24.26
삼성 변액종신 미국블루칩인덱스주식형	60	미국	3.46	3.14	13.08	22.78
메트라이프 VUL 유럽주식형	178	유럽	3.19	4.07	12.31	22.37
삼성 VUL&VA 더블유인덱스주식형	727	글로벌	3.48	2.65	11.93	19.83
카디프 VUL&VA 유로메리카 배당 ETFs	119	글로벌	3.16	3.06	11.89	19.27
삼성 VUL종신 더블유인덱스주식형	137	글로벌	3.42	2.55	11.70	19.06
알리안츠 VUL 글로벌셀렉트재간접형	129	글로벌	3.18	1.91	10.29	17.73
메트라이프 VUL 글로벌주식형	313	글로벌	3.09	2.66	6.63	16.63

변액보험 해외 주식혼합형 1년 성과 상위 Top 10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1년	연초후
미래에셋 VUL종신 글로벌컨슈머섹터주식안정성장자산배분형	1,265	글로벌	2.83	2.49	11.00	18.66
미래에셋 변액CI종신 글로벌컨슈머섹터주식안정성장형	189	글로벌	2.85	2.41	11.03	18.23
미래에셋 변액CI종신 글로벌인사이트자산배분형	686	글로벌자산배분	2.63	2.81	10.16	14.42
미래에셋 VA 글로벌컨슈머섹터혼합자산배분형	1,513	글로벌	2.45	2.10	9.12	14.26
흥국 VUL 글로벌혼합형	56	글로벌	2.04	2.35	7.94	13.99
교보 VUL 일본혼합형 II	53	일본	-1.40	-1.52	5.47	12.70
미래에셋 VUL 글로벌인사이트자산배분형	2,422	글로벌자산배분	2.63	2.43	9.56	12.67
삼성 VUL 일본혼합형	57	일본	-1.47	-0.93	5.28	11.51
교보 VUL 미국혼합형 II	54	미국	1.89	2.01	7.17	11.48
삼성 VUL 미국혼합형	90	미국	1.89	2.15	6.94	11.30

변액보험 해외 채권혼합형 1년 성과 상위 Top 10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1년	연초후
동부 VUL&VA 차이나혼합형	52	중국	1.74	1.72	6.30	7.94
삼성 VA 더블유인덱스30혼합형	897	글로벌	1.38	1.79	4.71	7.25
ING VUL 해외혼합성장형	231	글로벌	1.47	0.90	3.78	5.99
ING VA 선진국주식혼합형	124	글로벌	1.07	1.23	4.28	5.85
KB VUL&VA 글로벌혼합형	74	글로벌	1.32	1.55	4.35	5.28
한화 VA 팬유리피안혼합형 II	60	유럽	1.16	1.62	3.33	4.63
삼성 VUL&VA 글로벌혼합형	266	글로벌	0.82	0.77	3.60	4.54
미래에셋 VA 코친디아포커스7주식안정자산배분형	827	아시아신흥국	1.73	1.56	5.08	4.27
미래에셋 VA 친디아안정자산배분형	2,729	아시아신흥국	1.72	1.30	5.87	4.25
미래에셋 VA 차이나안정자산배분형	356	중국	1.67	0.61	5.14	4.19

주1) 순자산액 50억원 이상, 1개월 수익률순

주2) 펀드명은 제로인이 변액상품을 구분해 부여한 것으로 변액연금은 VA(Variable Annuity),
변액유니버설은 VUL(Variable Universal Life)로 표시함